

- 주요 뉴스: 미국 트럼프, 對中 관세 유예 연장 가능. 영국과는 대규모 투자 합의
 - 미국 주간 신규실업급여 청구, 전주비 큰 폭 감소, 8월 경기선행지수는 하락
 - ECB 권도스 부총재, 역내 인플레이션의 목표 하회 가능성은 제한적
 - 영란은행, 금리 4.0%로 동결. 인플레이션 등을 고려. 양적긴축 규모는 축소
- 국제금융시장: 미국은 완화적 통화정책 지속 기대 등으로 위험자산 선호 강화
 - 주가 상승[+0.5%], 달러화 강세[+0.5%], 금리 상승[+2bp]
 - 주가: 미국 S&P500지수는 Nvidia의 Intel 투자로 기술주가 주도하며 사상 최고치
유로 Stoxx600지수는 미국 증시 영향 등으로 0.8% 상승
 - 환율: 달러화지수는 주요 국제금리의 연이은 상승 등이 배경
유로화와 엔화 가치는 각각 0.2%, 0.7% 하락
 -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전주비 크게 감소한 주간 신규실업급여 청구 등이 원인
독일은 4/4분기 국채발행계획 규모 확대 발표 등으로 5bp 상승

※ 뉴욕 1M NDF 종가 1386.1원(스왑포인트 감안 시 1388.2원, 0.03% 상승). 한국 CDS 강보합

		9/18일	9/17일	전일대비			9/18일	9/17일	전일대비
주가	미국	6,632.0	6,600.4	+0.48%	국제 금리 10y	미국	4.10%	4.09%	+2bp
	유럽	555.01	550.63	+0.80%		독일	2.73%	2.68%	+5bp
	중국	3,831.7	3,876.3	-1.15%		영국	4.68%	4.63%	+5bp
	일본	45,303	44,790	+1.15%	CDS 5y	한국	18bp	18bp	+0bp
	한국	3,461.3	3,413.4	+1.40%		중국	34bp	36bp	-2bp
환율	달러지수	97.36	96.87	+0.50%	위험 지표	EMBI+	-	356	-
	유로화	1.1788	1.1813	-0.21%		VIX	15.70	15.72	-0.13%
	엔화	148.00	146.99	-0.68%		WTI유	63.57	64.05	-0.75%
	위안화	7.1124	7.1042	-0.12%	원자재	구리	454.1	457.1	-0.66%
	원화	1,387.8	1,380.1	-0.55%		금	3,644.3	3,659.9	-0.43%

주: 주가는 미국 S&P 500, 유럽 Stoxx 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I.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금일의 포커스

■ 미국 트럼프, 對中 관세 유예 연장 가능. 영국과는 대규모 투자 합의

- 트럼프 대통령은 영국 방문 기간 기자회견에서 중국과의 무역협상 타결에 근접하고 있으며, 양국 간 관세 유예도 이어갈 것이라고 발언. 관세 유예는 기존의 조건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연장할 것이라고 부연. 아울러 Tiktok 관련 매각 논의도 중국과 협력하여 마무리할 것이라고 첨언
- 주요 언론은 19일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시진핑 주석과 전화 통화를 가질 것이라고 보도. 다만 일부에서는 최근 중국이 Nvidia 관련 반독점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등 첨단기술 패권을 향한 양국 간 갈등이 여전하며, 이러한 상황이 결국 양국의 무역협상 타결에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
-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영국 스타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기술번영 합의(Tech Prosperity Deal)’에 공식 서명. 특히 이번 합의에 따라 미국 기업들은 영국에 AI 및 원자력 등 미래 산업 분야에 1500억파운드 규모의 투자를 약속. 또한 AI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의 양국 간 협력도 대폭 강화할 방침
- 영국 스타머 총리는 이와 관련하여 새로운 시대를 맞아 양국의 특별한 관계를 새롭게 했다고 평가. 또한 이번 합의는 양국이 함께 경쟁에서 앞서 나가고, 고용 및 성장을 통해 국민의 소득을 늘리기 원하는 정부의 의지라고 부연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미국 주간 신규실업급여 청구, 전주비 큰 폭 감소. 8월 경기선행지수는 하락

- 9월 2주차 신규실업급여 청구는 23.1만건으로 전주(26.4만건) 대비 크게 줄었으며, 감소 폭은 4년 만의 최대. 이는 지난주의 큰 폭 증가를 상쇄하는 결과이며, 이에 시장에서는 기업이 해고에 소극적이라고 평가. 아울러 되도록이면 직원들을 유지하기 원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평가
- 일부에서는 이와 같은 긍정적인 경제지표 발표가 지속된다면 연준에 대한 큰 폭의 금리인하 요구는 점차 약해질 것으로 전망(High Frequency Economics)
- 한편, 8월 컨퍼런스보드 경기선행지수는 98.4를 기록, 전월 대비 0.5% 하락. 최근의 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장기 국채수익률의 상승, 관세 인상 등이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로 거론

■ 러시아 푸틴 대통령, 최근의 경기 둔화는 인플레이션 완화를 위한 의도적 대응의 결과

- 푸틴 대통령은 최근 경제 성장 속도가 떨어지고 있는데, 이는 인플레이션 완화를 위한 의도적 대응 때문이라고 설명. 이를 감안할 경우 경기후퇴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 아울러 노동시장 역시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고 부연

■ ECB 권도스 부총재, 역내 인플레이션의 목표 하회 가능성은 제한적

- 권도스 부총재는 최근 역내 물가 상승 압력이 감소하고 있으나 인플레이션이 목표(연율 2%)를 하회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평가. 미국의 관세정책은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 관련 불확실성을 높일 수 있다고 지적

■ 영란은행, 금리 4.0%로 동결. 인플레이션 등을 고려. 양적긴축 규모는 축소

- 통화정책회의에서 금리를 4.0%로 동결하기로 결정했고, 이와 관련하여 9명의 위원들 가운데 7명이 찬성하고 2명은 반대. 이번 결정의 배경은 높은 수준의 물가이며, 8월 소비자물가의 경우 상승률이 3.8%로 영란은행 목표치(2.0%)의 2배 수준. 영란은행은 작년 8월부터 최근까지 금리를 총 5회 인하
- 한편, 양적긴축프로그램(QT)의 규모는 연간 1000억파운드에서 700억파운드로 축소할 방침. 이는 경제성장률이 정체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조치. 시장에서는 양적긴축 규모 축소가 장기 국채금리 안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

■ 중국 Huawei, 계산 능력 향상된 AI 칩 발표. 미국 Nvidia는 Intel에 대규모 투자

- 계산 능력을 크게 향상시킨 새로운 AI 칩을 공개했으며, 이는 Nvidia에 대한 도전이 이어지고 있음을 시사. 이번 조치는 당국의 Nvidia 칩 사용 금지 명령과 결합하여 중국의 미국 반도체 의존도 축소를 더욱 촉진할 것으로 예상
- 반면 Nvidia는 Intel에 50억달러를 투자하여 차세대 칩 공동 개발에 나설 것이라고 발표. 이는 AI 칩 산업의 지형 변화 가능성을 의미. 구체적으로 Intel의 경쟁사인 AMD, Nvidia와 AI 칩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는 TSMC에 상당한 수준의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평가

주요 경제지표

■ 주요 경제 이벤트(9/19일 현지시각 기준)

-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은 데일리 총재 발언, 일본은행 통화정책회의

해외시각 및 외신평가

■ 미국 경제, 금리인하 불구 불확실한 상황과 엇갈린 전망이 산재 - 블룸버그

(The Endless Layers of Policy Uncertainty)

- 연준은 9월 FOMC에서 고용 둔화를 주된 이유로 금리인하를 단행했지만, 9월 2주차 신규실업급여 청구는 전주비 큰 폭 감소. 이에 고용둔화 우려는 다소 완화. 아울러,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도 금리인하 직후 잠시 4.0% 아래로 하락했지만, 인플레이션 자극 가능성 등으로 반등(4.10% +2bp, 19일 기준). 한편, 일부는 암묵적인 물가 목표 상향(2.0%→2.8%) 용인 가능성도 거론(Bloomberg)
- 마이런 위원 50bp 인하 주장과 내년 파월 의장의 임기 만료는 연준의 공격적 금리인하 가능성을 제시. 다만 이 또한 FOMC 전체 위원들의 의사가 중요하기에 시행 여부는 불투명. 이외에 무역에서 시까지 다양한 불확실성 요인이 상존

■ 연준의 통화정책, 향후 금리 경로와 독립성에 관한 의문 지속 - Financial Times

(The Fed: good questions, no answers)

- 연준은 고용 둔화와 인플레이션 상승이라는 상반된 압력 속에서 금리 25bp 인하를 결정. 아울러 내년에 고용 문제가 더 악화되지 않도록 다소 높은 인플레이션을 용인할 의지가 있음을 시사. 이는 증시에 호재로 인식되지만, 실제 주가는 보합 마감. 그 이유는 연준 내부의 큰 분열을 보여준 점도표 때문
- 특히 親트럼프 성향의 마이런 위원은 연준 독립성 우려를 키웠고, 파월은 “1개의 표가 위원회를 좌우할 수는 없다”고 해명. 트럼프가 지명한 보우먼 부의장과 월러 이사는 25bp 인하에 동의했으나 의도가 불분명. 지금은 마이런 위원 혼자 고립된 모습이지만, 향후 백악관 개입에 따라 독립성 논란은 커질 소지

■ 미국 장기 국채금리, 연준의 금리인하 불구 하락 안정은 기대난 - 블룸버그

(The Bond Market Won't Like These Fed Rate Cuts)

- 9월 FOMC의 금리인하 후 장기 국채금리 하락 기대가 강화되면서 주택구매자, 기업, 정부 등은 차입비용 감소 효과를 예상. 그러나 '24년 금리인하 후에도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상승한 것과 같은 사례가 반복될 가능성
- 특히, 당시 유가 불안정이 부각된 것처럼 현재는 인플레이션과 노동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 이에 향후 몇 달간 연준의 금리인하로 인한 장기 국채금리의 하락은 기대와 달리 제한적일 소지. 또한 투자자들은 연준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 행사 시도 역시 인플레이션 상승 여건을 조성할 수 있다고 우려

- 연준의 양대 책무, 동시 달성의 어려움 등으로 폐지 고려할 필요 - Financial Times
(Why it might be the time to repeal the Fed's dual mandate)
 - 1978년 험프리-호킨스법(Humphrey-Hawkins Act) 개정은 연준의 양대 책무(물가안정과 최대고용) 추구를 요구. 한편, 연준은 본연의 임무 달성을 위해 '12년 1월 이후 인플레이션 목표(연율2%)를 제시하는 등 나름의 노력을 시도
 - 그러나, 9월 FOMC에서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이 목표에 비해 다소 높다고 밝혔으며, 이는 향후 인플레이션 목표 달성에 실패할 수 있음을 시사. 한편, 연준은 금리인하를 결정했으나, 이를 통한 고용부진 해결은 불충분할 소지. 이러한 상황은 양대 책무 달성의 한계점을 부각. 이에 오히려 1913년 연방준비제도법(Federal Reserve Act)에서 제시한 금융안정 유지 의무에만 집중할 필요성도 제기
- 연준의 금리인하는 트럼프 기대에 부합. 다만 인플레이션 등 우려 요인은 여전 - 블룸버그
(It's Trump's Federal Reserve Now)
- 미국 모기지 금리, 연준의 금리인하 결정에도 하락 현실화 여부는 불확실 - WSJ
(What Decides Where Mortgage Rates Go From Here)
- 연준의 통화정책, 과도하게 완화적 경로로 진행될 위험 증가 - The Economist
(America's monetary policy risks getting too loose)
- 중국의 필요 이상 석유 비축 확대, 저유가 선취매와 석유 안보 등이 이유 - 블룸버그
(Why Is China Stockpiling So Much Oil?)
- AI 활용, 가치투자의 황금기를 끝내고 투자 환경 평준화를 유도할 가능성 - 블룸버그
(AI has ended the golden age of value investing)

금융시장 주요 지표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172, E-mail jsjeong@kcif.or.kr